

# 중국조선족의 복식에 대하여

김 해 룡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 I. 복식미에 대한 생각

옷의 공능과 미는 구체적인 착의자를 통하여 표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복식미는 착의자와의 불가분리적인 총체적 조화미로 나타난다.

복식은 착의자의 인체심리적 특징, 즉 개성적 특징에 조화되어야 한다.

착의자와 옷, 양자의 총체적 조화미란 사실은 착의자의 개성과 옷의 개성, 양자의 조화미로 된다. 따라서 총체적 조화미가 사실상 개성적 조화미로 된다.

옷의 색깔, 양식, 천의 심미적 가치는 이를배반적이다.

## II. 역사적 회고

중국 조선족은 복식 역사상 크게 3개의 부동한 시기를 거치었다. 첫 시기는 입식으로부터 광복까지인데 이때는 물질생활의 극난으로 하여 복식미를 운운할 여지도 없었다. 두번째 시기는 광복으로부터 <문화대혁명> 결속까지인데 이때에는 복식미가 추구될 수 있는 물질적 조건도 더러 있었으나 정치상의 극좌로선으로 하여 <혁명적 옷>이 추구되었다. 세번째 시기는 <문화대혁명> 결속으로부터 오늘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극좌로선이 시정되고 개혁개방이 되어 복식미 자유추구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상 유행을 따르는 정도로서 진정한 복식미 창조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 III. 현하 세계복식미와의 비교

지금 세계의 복식미는 주로 연소화, 개성화, 성감화, 남성화, 편복화, 과학화, 다양화 등 추세를 보인다. 중국 조선족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른다고는 하나 물질적 조건의 결여와 미의식의 결여로 하여 수다한 폐단들을 보이고 있다.

## IV. 결 론

우리 민족의 복식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상징으로 된다.

진정한 복식미 창조는 생활의 향상과 문화교육의 수준 제고를 기대하게 된다. 조선족들도 예외가 아니다.